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지급

속초소방서, 3년 이상 경력자 자녀 74명

속초소방서(서장 최민철)는 의용소방대원의 자긍심과 사기진작을 위해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상은 경력 3년 이상 경력의 의용소방대원 자녀이며, 74명을 선발해 3월과 9월 연 2회에 걸쳐 자녀 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속초소방서 관계자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금 지급으로 대원들의 사기진작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광호 기자

거진 앞바다서 쇠돌고래 혼획



지난 26일 오전 6시 15분경 거진항 동방 1마일(약 1.8km) 해상에서 거진선적 정치망어선 G호(5.38톤)가 그물에 걸려 죽어있는 쇠돌고래 1마리를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속초해경에 따르면 G호 선장 김모씨(57세, 거진을 거진리)가 오늘 오전 6시경 조업차 거진항을 출항, 정치망 그물 인양 작업 중 그물에 걸려 죽어 있는 쇠돌고래 1마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쇠돌고래는 길이 1.1m, 둘레 1m의 크기로 눈과 주둥이 부근에 해양생물이 파먹은 흔적은 있으나, 작살이나 창살류 등 고의로 포획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원광연 기자

고성경찰서 사랑의 쌀 전달



고성경찰서는 보안협력위원회(위원장 해안스님)와 함께 설 명절을 앞둔 지난 17일 오전 10시 경찰서에서 고성지역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주민과 저소득 다문화 가정에 과일과 사랑의 쌀을 전달했다.

고성경찰서와 보안협력위원회는 이날 고향을 떠나 고성에서 생활하는 북한이탈주민 2가정과 저소득 다문화 25가정에 과일 2상자와 쌀 250포대(10kg)를 전달하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위문했다. 최광호 기자

‘신병’ 대상 최첨단 건강관리

육군 22사단, 전입 이등병 군의관과 1:1 건강상담 시행

육군 제22보병사단이 각 부대에 전입한 이등병들을 대상으로 군의관과 1:1 건강상담 제도인 ‘이등병 건강상담’을 시행하고 있어 장병 및 가족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이등병 건강상담’은 장병 복무여건 향상과 병영문화 개선의 일환으로 국방부에서 2011년 주요과제로 선정했던 세부과제 중 하나로, 지난해에는 일부 부대에만 시범적으로 운영되던 것을 올해부터는 군의관이 있는 모든 부대에서 시행하고 있다.

부대에 전입한 이등병들은 먼저 ‘전입 신병 집체교육’ 시간에 건강상담에 대한 소개교육을 받은 뒤 개인별로 사단 홈페이지의 ‘신병건강상담’ 배너를 통해 군의관과의 건강상담 스케줄을 등록한다.

이후 입대 전 질병관련 과거 병력, 현재 건강상태, 음주·흡연·운동·식습관·스트레스와 같은 생활습관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문진표를 작성하고, 부대별 군의관과의 1:1 건강상담을 실시하게 된다.

군의관은 상담결과를 e-DEMIS (Defense Medical Information System : 국방의료정보체계)에 기록해 유지하는 한편, 생활습관 개선 및 보건교육을 함께 실시하고, 필요시 진료 및 상급 의무



육군 22사단 신병교육을 마치고 진격부대로 전입한 이등병이부대 군의관과 상담하고 있다.

부대에 진료를 의뢰한다.

뿐만 아니라 각 부대는 이등병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사단 의무근무대 및 인근 보건소와 연계해 이등병들이 필요로 하는 금연·운동관리 등의 건강증진프로그램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건강상담을 받은 진격부대 김민우 이병(21세)은 “8주간의 신병교육 후 전입 오자마자 군의관이 내 건강상태에 대해 친절하게 상담해줘 감사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진격부대장 임기수 중령(42세, 육사 50기)은 “올해부터 도입된 이등병 건강상담제도를 통해 전입 신병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바탕으로 부대에 조기적응토록 지도할 수 있으며, 보다 철저한 병력관리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최광호 기자

교도소 출소후 현금 훔치다 구속

고성경찰서 상가 상습절도 피의자 검거 ... “소액 도난도 신고” 당부

고성경찰서는 지난 16일 교도소 출소 후 강원지역을 돌아다니며 심야시간대 상가 등에 상습적으로 침입하여 현금을 절취한 피의자를 검거해 구속했다.

피의자는 지난 7일 새벽 1시20분경 간성읍 신안리에 있는 피해자 고OO이 운영하는 분식 집 화장실 창문으로 침

입, 현금 2만원을 절취하는 등 검거되기 전까지 춘천, 양구, 홍천, 횡성, 인제, 고성 등에서 모두 30차례에 걸쳐 현금 200여 만원을 절취한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는 지난해 11월 교도소를 출소한 뒤 갯생보호원에서 노동일이 힘겨워 지자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인적이 드물고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재래시장 주변 상가에 침입하여 2~3만원의 소액만을 절취해 피해자들이 신고하지 않도록 하는 용의주도함을 보였다.

피해지역을 중심으로 잠복근무 중 PC방에 들어가는 피의자를 검거한 경찰 관계자는 “소액의 현금을 도난 당했을 때 도 반드시 신고해야 이와 같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최광호 기자

고성경찰서 경무과장에 김한조 경감

26일 과장급 11명 인사발령...간성파출소장에 최웅선 경감

고성경찰서는 지난 26일자로 김한조 생활안전계장을 경무과장으로, 신승택 간성파출소장을 수동치안센터로 이동시키는 등 과장급 11명에 대한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다음은 인사발령 현황이다.(괄호안은 전직)

△경무과장 경감 김한조(생활안전계장) △생활안전교통과장 경정 박윤재(생활안전교통과장) △수사과장 경감 이영

길(강릉서 형사과) △정보보안과장 경감 이성권(속초서 청문감사관) △간성파출소장 경감 최웅선(강릉서 생활안전과) △금강지구대장 경감 김강수(원주서 보안과) △토성파출소장 경감 전착익(속초서 영랑지구대) △생활안전계장 경위(승진 후) 김광기(양구서 경무과) △외근지도관 경감 김상집(경무과장) △수동치안센터 경위 신승택(간성파출소장) △현내치안센터 경위 김기선(수동치안센터).

최광호 기자

경조사·모임·구인·구직·개업 생활정보 무료로 안내해 드립니다

광고·구독 문의

TEL. 033-681-1666~7

생활정보 접수방법

◆전화 : 681-1666~7 ◆팩스 : 681-1668

◆이메일 : goseongnews@hanmail.net ◆핸드폰 문자 010-2022-2633

※매주 목요일 오후 5시까지 접수된 내용에 대해 다음주 월요일자 신문에 게재해 드립니다.